

# 신행의 돛 올렸다



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경찰청 산하 경찰서 13곳중 처음으로 불교회를 창립하고 '해양불심'을 일으키기 위한 첫 항해를 시작했다.

## 인천해양경찰서 10월 27일 불자회 창립 “경찰포교 더이상 사각지대는 없다”

해양경찰불자들이 구도의 첫 돛을 올렸다. 10월 27일, 해양경찰서로서는 처음으로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가 창립됐다. 이로써 경찰포교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해양경찰청에 불풍(佛風)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이하 대한경불회)는 1989년 경찰청불교회의 창립을 시작으로 전국 14곳 지방경찰청 중 전북지방경찰청을 제외한 13곳 지방경찰청에 불교회를 창립하며, 경찰 불심을 일으켰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해양경찰청 산하 해양경찰서 13곳 중 불교회가 창립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해양경찰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바로 배우고 서로 탁마해, 불국정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경찰청 경승실장 선임 스님도 법어를 통해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의 창립은 경찰불자들의 활동범위가 육지에서 바다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해양경찰자들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장 윤희수 총경 또한 김수경 경무과장(인천해양경찰서)이 대독한 축사에서 “초발심으로 불교회 회원 개개인의 성불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달라”고 축하했다.

**■ 경찰불자들 활동 바다로 확대**  
인천 연안부두 해양경찰서 3005호함 선상에서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바로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의 창립기념법회 현장.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원 100여명과 인천경찰청 공무원 및 인천 수미정사·법명사 신도 300여명이 함께 한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격려사 및 축사, 발원문 낭독, 법어, 감사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국경승단장 도영 스님(포교원장)은 원철 스님(포교원 신도국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많은

해양경찰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바로 배우고 서로 탁마해, 불국정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경찰청 경승실장 선임 스님도 법어를 통해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의 창립은 경찰불자들의 활동범위가 육지에서 바다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해양경찰자들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장 윤희수 총경 또한 김수경 경무과장(인천해양경찰서)이 대독한 축사에서 “초발심으로 불교회 회원 개개인의 성불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달라”고 축하했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 불자회 성낙환 회장(경정)은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열린 신행 활동을 통해 불교 근본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는 참된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 후,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는 민생 안전을 위해 사뭇한 해양경찰 및 전경들을 위한 호국영령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 해양경찰불자들의 구심점 자리**  
직장·직능단체 중 단단한 조직력과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대한경불회. 4년여 동안의 짧은 역사동안 대한경불회는 전국 106곳의 경찰기관에 불교회를

창립시키고 경찰법요집 발간과 소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경찰불자들의 체계적인 신행 활동을 도왔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에 있어서만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해양경찰서가 갖은 해양과 순회근무 등으로 정기적인 법회와 신행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경불회는 올해 사업목표를 해양경찰포교로 잡고 해양경찰청 산하 경찰서 13곳을 대상으로 불교회 결성 유무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방경찰청들의 협조와 자매결연 등을 유도했다.

그 결과 해양경찰서로서는 처음으로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가 창립됐다. 대한경불회는 우선적으로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경찰법요집 등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인천지방경찰청 불교회를 비롯해 인천 강화서, 중부서, 인천공항경찰대 불교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부산과 목포 해양경찰서 등 나머지 12곳의 불교회 창립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해양경찰서 역시 경승실을 개원하고, 종영 스님(수미정사 주지)과 경양 스님(안산선원 주지)을 경승으로 위촉해 불교회의 조직을 다졌다. 또한 해양경찰들의 근무 장소 및 시간이 일정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매일 정기법회를 유동적으로 진행하고, 사찰집배 등의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해양경찰서 12곳 불자회 창립 장려**  
사실 해양불심이 피어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앞서 부산해양경찰서와 제주해양경찰서 등이 불교

### 인터뷰

“바다에 연꽃 피우기 작은 일부터 하나갈 터”



“바다 곳곳에 연꽃을 피우겠습니다.” 10월 27일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 창립회장으로 선임된 성낙환 경정은 “우선 경찰서 내 불자들을 불교회 활동에 동참시키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해양경찰서 공무원 10명 중 불자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상당수가 불자임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물 속에 잠자고 있는 불자들을 깨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매일 두차례 법회를 통해 회원들 스스로가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성 회장은 “이밖에도 해양경찰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해전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 및 전경 등을 위해 천도재 등의 뜻 깊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임을 운영하며 신행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공식 불자회가 아닌, 경찰서 내 불자들 소수가 모여 정보를 나누는 수준의 개별모임의 성격이 강했다. 자체적으로 지도법사 스님을 위촉하기도, 마땅히 신행활동을 펼칠 장소와 교재 등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인천해양경찰서 불자회의 창립은 대한경불회의 포교영역 확대 및 해양경찰불자들의 신행활동 시작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립될 해양경찰청불교회의 선례라는 의미가 강하다. 불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창립 후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불교회를 운영해야 하는지, 모범 답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중단과 경승단, 경찰불자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중단은 해당 경찰청에 경승위촉과 경승실 마련을 촉구하고, 경승단은 불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회지도 및 상담자 역할을, 경찰불자회는 회원들 간의 친목과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불자회 역할과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 공차고 달리며 화합 다져

대구 운불련 3개조로 나눠 첫 체육대회



대구 운불련은 3일만에 걸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우리 운불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친절 서비스에 이름을 걸고 열심히 정진합니다.”

10월 26일 대구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는 대구 운불련(한국운전자봉사자연합회) 신상용 회장의 목소리가 저 멀리 울려 퍼졌다. 대구 운불련 호출택시가 제 7회 체육대회를 10월, 24일, 26일 3일에 걸쳐 조별로 개최했다.

마지막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에 열린 1조의 체육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축구, 족구, 이인삼각 달리기, 400 계주, 줄다리기 등으로 이어졌다.

3D업종이라 불릴 만큼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신심과 포교에 대한 열의로 포교일선에 앞장서 온 대구 운불련 회원들은 공을 차고 달리며 현실의 어려움을 벗고 모처럼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대구 운불련 회원들은 몸의 부딪힘을 통해 어느덧 한마음으로 뭉칠 못했다.

배지선기자

## 국회 정각회 ‘재도약’ 다짐 법회

24일 국회법당에서 ... 회보 발행도

국회 불자들의 신행모임인 정각회(회장 이용희·한나라당)가 11월 24일 국회 지하법당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에 들어간다.

정각회는 창립법회에 앞서 ‘열린불교사람들-정각뉴스’라는 제목으로 정각회와 불교계 주요법회 및 행사소식 등을 담은 4페이지짜리 회보를 발행하고, 불자들의원을 비롯해 무종교인들의 정각회 가입을 독려하는 등 내실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중단 및 관련 단체로부터 불교 관련 현

안과 여론을 수렴, 상임위원회별 활동 중인 정각회원들의 의정활동에 불교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각회는 제11대 국회의원 1981년 정식 출범해 활동을 지속해오다 1998년 여당과 야당 어느 쪽에서 회장을 맡느냐는 문제를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 7월 10일 조계사에서 양당의 국회의원 13명이 뜻을 모아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을 재개했다.

김은경 기자

## 국정원 세기법우회, 8주년 기념법회 가져

국정원 세기법우회가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10월 28일 국정원 내 국가정보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동국대 정각회장 법산 스님 및 법우회 회원 80여명이 함께한 이날 자리는 지난 활동을 검토하고, 향후 활동 계획과 방

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법산 스님은 “창립 8주년을 축하드리며, 신행활동은 물론 국가의 소임을 맡고 있는 만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 대한항공 전세기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부처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때물지 않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출발일: 12월 5일 / 12월 13일 단, 2회 “대승항공여행사” 단독 전세기

\* 불교성지순례 - 종전 ₩ 1,680,000 ▶ ₩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사가잉)-양곤-인천

\* 문화탐방 - ₩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주)대승항공여행사 (www.dsatour.com) 후원 대한항공 한진관광

서울 02)730-0202 부산 051)245-0108 대구 053)572-0108 대전 042)583-0108 광주 062)361-0108

###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일	출발/도착	교동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 후 호텔 투숙	중 석 식 기내식
제02일	양곤 파간	국내선	06:30 07:50	HOTEL   TRADDERS HOTEL CLASS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과노라마 관공-세지코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이파고다, 해산도파고다, 이라와디강 석양상투 호텔투숙	조 중 석 현지식
제03일	파간 만달레이 사가잉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HOTEL   THARABAR GATE HOTEL CLASS 아침공양후 공파왕릉의 만달레이 이동 후인국의 마누하사원, 부파이파고다, 순례 사거리 이동후 삼우봉아산, 우민동제파고다 순례 만달레이 귀환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현지식
제04일	만달레이 양곤	국내선	09:30 11:05	HOTEL   MANDALAY HILLRESORT CLASS 아침공양후 양곤 이동후 호카친다옥불사, 차욱릿지파고다, 슬림 공 및 까베에파고다(전신사리) 방문(정대불사, 정행, 아용산기법탑 경유 양곤 출발)	조 중 석 현지식
제05일	양곤	전일	23:35	HOTEL   TRADDERS HOTEL CLASS 아침공양후 쌍해도파고다, 마하시수도원 순례 아용산기법탑 경유 양곤 출발	조 중 석 한 식
제06일	인천	인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 상륙 하십시오 *	조 중 석

### 미얀마 문화탐방

일	출발/도착	교동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 후 호텔 투숙	중 석 식 기내식
제02일	양곤 해호	국내선	15:30 16:40	HOTEL   TRADDERS HOTEL CLASS 호텔 조식후 해호파고다, 아용산기법탑 경유 해호파고다, 로카친다 옥불사, 해호 이동 석식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현지식
제03일	해호 파간	전일	17:05 18:35	HOTEL   HUPPIN HOTEL CLASS 호텔 조식후 인국의 수상시장 및 수상경치지 외방노릇기 관공 방도파고다, 안맹유적지 관공 파간 이동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현지식
제04일	파간 양곤	국내선	18:55 20:15	HOTEL   THARABAR GATE HOTEL CLASS 호텔 조식후 불탑과노라마 관공-세지코파고다, 아 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이파고다, 해산도파고다, 아곤 이동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현지식
제05일	양곤	전일	23:35	HOTEL   TRADDERS HOTEL CLASS 호텔 조식 후 침엽공 및 까베에파고다 관공 사욱릿지파고다, 아용산기법 관공 양곤 출발	조 중 석 한 식
제06일	인천	인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조 중 석